

문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메시지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10일 “쉽 없이 달려온 1년이였다”고 숨 가뻐던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취임 1주년 인사말에서 “다시 5월이다. 대한민국 1년과 대통령으로서의 1년을 돌아본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 1년이였다”며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

“세상 바꾸고 있는 건 국민... 저는 국민과 함께할 뿐 임기 마칠 때쯤 ‘세상 달라졌다’는 말 들었으면”

하고자 한 1년이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해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고자 한 1년이였다”며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시켜 세계 속에 우리의 자력을 보여주려고 한 1년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들께 국

민이라는 자부심을 드리고자 한 1년이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국민의 삶으로 보면 여전히 그 세상이 그 세상 아닐까 싶다”며 “그래도 분명히 달라지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1년이었던 진정으로 바란다”고 했다.

이어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여전히 강하다”며 “하지만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손을 꼭 잡아주시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든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 광장의 소리를 기억하겠다”며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음, 많이 달라졌어. 사는 것이 나아졌어’라는 말을 꼭 듣고 싶다. 평화가 일상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뉴시스



문 정부 출범 1주년 직원에게 감사의 선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0일 청와대는 인사태그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직원들에게 선물이 도착했다”며 선물을 공개했다. (사진=청와대 인스타그램)

6·13 지방선거

전주시장 예비후보 동향

“행복한 전주 만들고자 민평당 입당”

이현웅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현웅 전주시장에 예비후보가 민주평화당 입당을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10일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주의인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무소속 정치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나후된 전



주발전과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전주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민주평화당에 입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권력의 적폐청산 의지도, 10년을 후퇴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도 볼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승복하고 백의종군하기에는 전주시의 적폐를 외면하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기에 탈당을 결행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민평당 공천과동 좌시하지 않겠다”

엄윤상 예비후보 “특정후보 영입 과정 적폐정치 실체”

엄윤상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평화당 공천과동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엄 예비후보는 “평화당은 지난 9일 평화당 소속 일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특정 후보 영입 기자회견을 주무한 비열한 행태를 보였다”면서 “특정 후보 영입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제 평화당 전주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예비후보 22명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후보 입당을 요청했다. 해당 후보는 10일 입당 수순을 밟으면서 항간에 떠돌던 영입설이 사실임을 반증했다.

엄 예비후보는 원칙을 무시한 당지도부 행태를 비난하며 적폐정치 청산에 결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번 A후보 영입 과정은 적

폐정치, 적폐공천의 실체다. 정치 인생을 걸고 싸울 것”이라며 “폐단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 전면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평화당의 당규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경우 공모와 지역심사, 최고위 인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모일과 기간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모는 7일 전에 공고한 후 게시해야 함을 강제하고 있다.

엄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 “당규에 따른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는다면 A후보의 등록절차에만 최소 10일이 소요된다. 원칙과 도의를 무시하는 A후보와 달리, 당헌과 당규마저 무시한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독재정부 시절, 우리의 헌법과 법률이 농락당했던 과거가 떠오른다. 독재의 폐단을 답습하고 있는 적폐에 맞서서, 민주주의와 법률, 시민의 권리를 수호해야하는 정치인의 기본윤리를 꼭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민주당 장수·순창군수 후보에 장영수·황숙주

더불어민주당 소속 6·13 지방선거 장수군수와 순창군수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확정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10일 제8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장수군수는 장영수(전 전북도의원) 예비후보가, 순창군수는 황숙주 현 군수가 각각 선출됐다고 밝혔다.

장영수 예비후보는 경선 여론조사

결과 43.35%를 얻어 양성빈(41.63%), 오재민(15.02%) 후보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

황숙주 현 군수는 63.40%의 득표율로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이날 경선 결과를 끝으로 민주당 전북도당은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후보들을 모두 확정지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혁신학교 벨트화사업 추진토록

최인정 도의원 예비후보, 지역 공약 추가 발표

전라북도의원 최인정(군산3선거구) 예비후보가 10일 군산지역 내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며 합한 날개 짓을 시작했다.



최 후보의 이번 추가 공약발표는 발표말미와 정책공약이 최우선과제로 보고 지역구를 바뀐 결음으로 재촉하며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마련됐다.

최인정 후보는 이날 △혁신학교 벨트화사업 4년간 약 20억원 내미 세면지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사업 약 30억원 △초·중학교 완전 무상교육 약 12억원 △수송동 관내 A연립주택 유지보수 약 2,500만원 △비가림 시설 역전시장(4억원), 신영시장5동(6억원), 명산시장(2억원) 등을 공약했다.

혁신학교 벨트화사업은 초·중·고 혁신교육 연계성을 위해 혁신학교를 잇는 사업으로, 군산지역 혁신학교 벨트화를 위해 도교육청에 추가 지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점을 들며, 군산지역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조속히 공기청정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백화점 못지않은 소규모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지역내 시장의 비가림시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의 하나로 역전시장 4억원, 신영시장 6억원, 명산시장 2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최인정 후보는 “비가림 시설을 통해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시장 환경은 물론, 장 보러 나온 고객과 상인 모두의 만족감을 높일 것”이라며 “특히, 지역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 등 다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성 기자

홍준표 선관위 과태료 2천만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등록 기관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3월21일 특정 지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A연구소에서 조사한 B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B시장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